

추론주의, 구성성 그리고 의미의 두께

최 동 호

(서울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0. 들어가며

20세기 언어분석 철학의 역사에서, ‘한 단어의 의미는 바로 그 지칭체에 의존한다’는 지칭적[표상적] 의미이론(Referential[Representational] theory of meaning)의 영향력은 지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대세적 흐름 속에서도 이를 따르지 않는 반군의 움직임이 또한 있었는데, 본 논문에서 다루는 셀라즈-브랜덤(Sellars-Brandom)의 추론적 의미이론[추론주의](Inferential theory of meaning [Inferentialism])¹⁾은 이런 반군의 입장들 중 하나이다.²⁾

추론주의에 의하면, 개념적 내용(conceptual content)을 갖는다는 것은 ‘이유를 묻고 답하는 추론적 게임(inferential game of giving and asking for reasons)’에서 역할(role)을 수행하는 것이다. 즉, 한 개념 [의미]³⁾을 이해하는 것은 그것이 포함된 추론에 대해 실천적으로

1) 이하 본문에서 추론적 역할 의미론, 추론주의, 추론적 의미이론 등은 모두 같은 의미이다.

2) 표상적 의미론에 반대하는 이런 움직임은 분석철학 초창기 무렵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분석철학의 창시자중 한명인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은 그의 후기 철학에서 우리가 현재 사용의미론(Use theory of meaning)이라 부르는 이론의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며, 이것은 20세기 후반부에 이르러 개념 역할 의미론(Conceptual Role Semantics) 및 추론 역할 의미론(Inferential Role Semantics)으로 발전되었다. 참고적으로 셀라즈(Sellars), 필드(Field), 하만(Harman), 블록(Block), 호르위치(Horwich), 브랜덤(Brandom)등이 이런 노선에 있는 철학자들이다.

3)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개념과 의미의 구분 문제이다. 흔히 개념은 사고(thought)의 기본 단위이며, 의미는 명제(proposition)의 기본 단위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개념은 심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 혹

(practically) 숙달(master)하게 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추론주의는 의미[개념]가 추론적 역할(inferential role)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의 추론은 일반적 용법과 차이가 있다. 추론주의에서의 추론은 (개념 역할 의미론에서 일반적으로 가정하는 바와 같은) 사용자 개인의 심리체계 내에서의 기능적 역할(functional role in psychological system)이 아니라 용어의 공적 사용(public use)에 있어서의 추론이며, 한 언어적 표현의 추론적 역할은 그 표현이 적절하게 적용되는 상황들(circumstances)과 그 적용의 적절한 귀결들(consequences)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추론적 역할을 뜻한다. 또한 추론적 역할은 단지 (논리적 형식과 관련된) 형식적 추론(formal inference)뿐만 아니라, (추론의 올바름이 그 추론에 포함된 개념들의 내용에 의해 주어지는) 실질적 추론(material inference),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 그러므로 땅이 젖을 것이다.’와 같은 추론에서의 역할을 포함한다. 쉽게 말해서, 비, 땅의 의미는 ‘비가 온다. 그러므로 땅이 젖을 것이다’와 같은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들(materially valid inferences)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사람들이 이런 추론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은 비, 땅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은 ‘이유를 묻고 답하는 우리의 사회적 실천’(our social practice of giving and asking for reasons)에 기반을 두고 있다.⁴⁾

은 추상체(abstracta)와 연관되며, 의미는 언어적 표현에 연관된다. 하지만 사고와 언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들이 존재한다. 브랜덤에게 있어서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이해된다. 브랜덤은 자신의 이론 전개에 있어서 개념에 대한 관계 언어적 접근(a relational linguistic approach to the conceptual)(개념을 언어와의 관계 하에서 규명하는 접근법)을 취한다. 이에 따르면, 개념 사용은 본질적으로는 언어적인 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일반적 논의와는 약간 다르게, 브랜덤의 이론에 있어서는 의미이론(theory of meaning)과 개념이론(theory of concept)이 그렇게 다른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의미이론을 종종 개념 이론이라고 부른다. 이 글에서 이하의 논의는 이런 점을 반영하여 전개된다.

- 4) 부연하자면,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은 우리의 사회적 실천 속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것의 옳음을 승인하게 되는 그런 것이다. 이러한 추론에는 ‘번개가 친다 따라서 천둥 소리가 들릴 것이다 와 같은 자연 법칙과 관련된 추론들’ 및 ‘서울은 인천의 동쪽에 있다. 따라서 인천은 서

이상의 추론적 의미론을 전개하면서, 브랜덤은 표상(representation), 지칭(reference), 진리(truth) 등의 의미론적인 용어들을 통해서 추론을 설명하는 기존의 일반적 전략들과는 반대로, (화용론적 맥락 속에서) 추론을 중심에 두고서 표상, 지칭, 진리 등의 용어를 이것에 의해서 재해석하고자 한다. 이런 브랜덤의 시도는 세계적인 석학 중에 하나인 하버마스(Habermas)가 ‘이론철학에서의 브랜덤의 저작’을 ‘실천철학에서의 롤즈(Rawls)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에 빚대어 칭찬하게끔 만들었다(Habermas, 1999).

그러나, 여기서 해피 엔딩이 된다면 너무 심심하다. 철학 동네에서 언제나 그렇듯이 모난 돌은 주목을 받게 되어 있다. 포더(Fodor)와 르포어(Lepore)는 표상주의적 이론을 구약성서(Old Testament)로, 추론적 의미론을 신약성서(New Testament)로 비유하면서, 구성성(compositionality)에 기대어서 추론적 의미론을 신랄하게 공격한다.⁵⁾ 간단히 말해서, 의미는 구성적(compositional)인데 추론적 역할은 구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추론적 역할은 의미가 될 수 없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만약에 추론주의가 이런 구성성 반론을 견뎌내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다면, 그 대담한 기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추론주의의 입장에서 구성성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을까? 구성성(compositionality)이라는 제국군[표상적 의미론]의 죽음의 별(Death Star)을 반란군의 제다이 기사는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내용을 이룬다.

즉, 본 논문의 목적은 간략히 말해서, 브랜덤에 의해서 주장되는 추론적 의미론에 대한 강력한 반론 중에 하나로서 포더와 르포어에 의해서 제기된 ‘의미의 구성성 문제’를 추론주의의 입장에 서서

울의 서쪽에 있다 와 같은 개념적 규약에 관련된 추론들이 포함된다.

- 5) 포더와 르포어가 추론 역할 의미론 전반을 공격하는 논문을 출판한 것(1991년)은 브랜덤의 책(1994년)이 나오기 이전이다. 하지만 포더와 르포어는 91년 이후에도 추론 역할 의미론 및 인식적 의미론 일반에 대한 공격 그리고 더 나아가서 브랜덤 버전의 추론주의를 향한 공격을 계속해서 단행한다. 이 때문에 91년 포더와 르포어의 언급들 역시 이후의 브랜덤의 이론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위의 편의상의 서술 방식에 오해가 없기 바란다.

방어하는 것이다.

1. 추론주의에 대한 구성성 반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한정된 수의 단순 표현들을 통해서 무한한 수의 복합표현들을 이해할 수 있으며, ‘동호는 썬타를 사랑한다’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와 개념적으로 연결된 ‘썬타는 동호를 사랑한다’를 또한 이해할 수 있다. 전자는 언어의 생산성(productivity)이라 불리며, 후자는 언어의 체계성(systematicity)이라 불린다. 그리고 기존 언어학적 논의에서 이런 언어적 현상들[생산성, 체계성]을 설명하는 손쉬운 방법은 구성성(compositionality)을 가정하는 것이었다. 즉, 언어가 구성적이라고 가정한다면, 언어의 생산성과 체계성은 쉽게 설명된다. 여기서 구성성이란 ‘복합 표현의 의미가 그것을 구성하는 단순 표현들의 의미와 단순 표현들의 결합방식에 의존한다는 것, 즉 단순 표현들의 의미와 그 결합방식을 이해하면 복합표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왜 구성성을 가정하면 언어의 생산성이 쉽게 설명될 수 있는가?⁶⁾

언어의 생산성에 따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 “명왕성에는 장난감 기차 토마스를 가지고 노는 키가 크고 잘 생긴 낙원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처음 듣는 문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복합표현(이 경우 전체 문장)의 의미가 단순 표현들(명왕성, 장난감 등등)과 그 결합규칙으로만 이루어져 있다(즉, 의미가 구성적이다)’는 것을 가정하면 설명되기가 매우 쉽다. 복합표현의 의미가 단순 표현들의 의미와 그 결합규칙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가 한정된 단순표현들 및 문법규칙만 이해하게 될 때 더 이상의 추가적 정보에 기대지 않고서도 전체 문장(비록 그것을 처음 접하더라도)을 이해하는데 아무

6) 본 논문에서는 체계성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고, 생산성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한다. 체계성에 의한 구성성 반론은 Fodor(2001b) 및 최동호(2007)을 참고하기 바란다.

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언어 또는 단어의 의미가 구성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비교적 널리 인정되는 주장이다.

한편 포더와 르포어의 논증은 여기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된다. 생산성, 체계성을 위해서는 구성성이 요청된다는 기존 논의에 기대면서, 포더와 르포어는 추론주의는 구성성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올바른 의미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Fodor & Lepore, 1991)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여기서의 예들 및 논증들은 본래 취지에 어긋남이 없이 글쓴이에 의해서 재구성된 것이다.)

가령, ‘애완 물고기’와 같은 복합 표현의 의미는 ‘애완’, ‘물고기’라는 단순 표현들의 의미와 그것의 구문(형용사+명사)에 의존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애완물고기의 의미는 구성적이다. 반면에, ‘애완 물고기’의 추론적 역할은 ‘애완’의 추론적 역할과 ‘물고기’의 추론적 역할 이외에, ‘애완 물고기에 대해 당신이 가질지 모르는 믿음들(예: 애완 물고기는 징그럽다)’에도 의존한다. 곧, 추론적 역할은 구성적이지 않다. 따라서 의미는 추론에서의 역할이 될 수 없다고 포더와 르포어는 논증한다. 만약 언어의 생산성과 체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성성이 요청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구성성이 만족되지 않는 추론적 의미론은 의미론으로서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의미론이 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포더와 르포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98년을 기점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보다 강화시킨다. 그들은 ‘단순한 표현을 이해한다면, 복잡한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기존 순방향 구성성 요구조건을 보다 강화하여, ‘단순한 표현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복잡한 표현을 이해할 수 없다’는 역방향 구성성을 부가적으로 첨가한다.⁷⁾ 다시 말해서, 포더와 르포어는 ‘의미는 순방향 구성적일 뿐만이 아니라 역방향 구성적이며, 추론주의는 이런 양방향 구성성(특히 역방향 구성성)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올바른 이론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⁸⁾

강화된 구성성 요구조건에서 포더와 르포어가 말하는 핵심적 논변은 ‘우리가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역방향 구성성이 요청되는데, 추론주의는 역방향 구성성을 만족하지 못하

기 때문에 올바른 이론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논변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만약 ‘물고기’에서 ‘전형적으로 호수와 개울에서 산다’로의 추론을 배우는 것이 ‘물고기’라는 단순 표현을 배우는 것의 일부분이라고 해보자. 즉 추론주의가 맞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애완물고기’에서 ‘어항에 산다’로의 추론이 또한 성립하기 때문에 ‘애완 물고기’를 포함하는 보통의 추론들은 ‘물고기’에 대한 어휘 도입에 반례들이 된다. 이 논증은 형용사 수식들이 반복(‘애완 물고기’로부터 ‘큰 애완 물고기’로, ‘큰 애완 물고기’에서 ‘아름다운 큰 애완 물고기’로, 기타 등등)될 수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반례들을 어휘목록에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런 무수히 많은 반례들은 언어를 배우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물고기가 호수와 개울에서 산다고 처음에 배운 아이는 나중에 (호수나 개울에 살지 않는) 애완물고기를 보고서 물고기라는 단어의 의미를 혼동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피하는 유

7) 역방향 구성성과 순방향 구성성의 차이를 더 쉽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단순한 표현들 → 복잡한 표현
 ←
 (나)

(가): [순방향 구성성(forward compositionality)]

- 단순한 표현을 이해하면 복잡한 표현을 이해 할 수 있다.

(나): [역방향 구성성(reverse compositionality)]

- 복잡한 표현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단순한 표현들의 의미를 이해한다. 다시 말해서 단순한 표현을 이해하는 것이 복잡한 표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요 조건이다. 단순한 표현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복잡한 표현을 이해할 수 없다.

- 8) 포더와 르포어가 구성성 논증을 통해서 타 이론들(추론적 의미론 및 인식적 의미론들)을 공격하는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Fodor&Lepore(1991), (1996), (2001a), (2001b), (2002), (2006), Fodor(1998a), (1998b), (2001). 이 중에서 역방향 구성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논문은 Fodor&Lepore(2001b), (2002), (2006), Fodor(1998a), (1998b), (2001) 이다.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이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일한 방법은 ‘물고기’가 임의의 복합 표현에서 갖는 유일한 의미[공통적인 의미]만 갖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표현들은 그것들을 포함하는 복합표현들에 그들의 의미 모두를 기여한다. (복합표현의 의미가 단순표현의 의미를 결정한다.) 곧, 사람들은 단순한 표현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복잡한 표현을 이해할 수 없다. (의미는 역방향 구성적이다.)

만약 이런 역방향 구성성이 의미론에 요구된다면, 추론적 의미론은 올바른 의미론이 될 수 없다. 추론적 역할은 역방향 구성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애완 물고기’의 추론적 역할은 ‘애완’의 추론적 역할을 결정하지 않는다. 당신과 나는 ‘애완 물고기’를 포함하는 본질적으로 같은 추론을 이끄는 경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애완 뱀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애완’에 대한 우리의 추론적 역할에서 다를 수 있다.⁹⁾

이상에서 포더와 르포어의 논증을 다시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언어의 생산성과 체계성 그리고 배움 가능성이라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쌍 조건적 구성성[순방향 구성성과 역방향 구성성]이 요구되는데, 추론적 의미론은 이런 제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¹⁰⁾

2. 브랜덤의 대응

그렇다면 브랜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가? 한마디로 브랜덤은 포더와 르포어의 반론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식적 대응 즉, 논

9) 이 내용은 Szabó(2004)를 토대로 한 것이다.

10) 한편, 여기서 분명히 언급해야 하는 점이 있다. 이 글의 본문에서 순방향 구성성은 생산성, 체계성과 연관을 지니며, 역방향 구성성은 배움가능성과 연관을 지닌다고 단순히 기술했지만, 순방향 구성성/역방향 구성성과 생산성/체계성/배움가능성 사이의 관계는 이보다 더 복잡하다. 예를 들어서, 포더와 르포어는 ‘배움가능성은 순방향 구성성을 필요로 한다’고도 말한다(Fodor&Lepore, 1996). 하지만 그들은 이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고 자세한 근거를 거기에서 제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포더와 르포어가 보다 강조를 하는 논증에 초점을 맞추어 위와 같이 기술하였다.

문 출간을 하지는 않았다(적어도 이 논문을 쓰고 있는 현재까지는 그러하다). 다만 브랜덤은 포더와 르포어의 구성성 비판에 대해서 비공식적인 대응 발표를 하긴 했었다. 「추론주의와 그에 대한 어떤 도전들(2002)」 “Inferentialism and Some of Its Challenges”, 「존 로크 강의(2006)」 “John Locke Lecture”.¹¹⁾ 하지만 이것이 수정되지 않을 브랜덤의 최종 입장일지는 의문이다. 브랜덤이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자신의 논문을 출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 논문을 통해서 브랜덤은 포더와 르포어의 생산성과 연관된 구성성 논증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만, 체계성에 대한 구성성 논증과 배움 가능성에 대한 (역방향)구성성 논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언급하지 않는다.

상황이 이러하지만 지금 이 논문에서 주인공 브랜덤의 입장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서 브랜덤의 대응입장들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에서의 논증 및 예들은 글쓴이가 브랜덤을 이해한 방식에 따라 재구성 및 변형된 것이다.

브랜덤은 언어의 생산성을 거부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브랜덤은 구성성 요구조건을 받아들이는가? 이에 대해서는 그렇기도 하며, 그렇지 않기도 하다. 대답은 구성성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달려있다. 브랜덤은, Fodor&Lepore(2002) 서문에서 포더와 르포어가 다음과 같이 구성성을 정의한 것을 자신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Brandom, 2006).

“구성성은 표상들의 체계가 다음과 같을 때 갖는 속성이다.

(i) 그것은 원초적[단순] 기호들과 구문론적으로 그리고 의미론적으로 복잡한 기호들을 모두 포함한다.

(ii) 후자[복잡한 기호]는 그것의 구문론적/의미론적 속성들을 전자[단순 기호]로부터 물려받는다.

(Fodor&Lepore, 2002, p1에서 글쓴이가 각색)”

11) 글쓴이가 브랜덤에게 개인적으로 이 메일을 보냈는데, 그는 친절하게도 아무런 안면이 없는 한국의 대학원생에게 자신의 (미 출판)발표자료를 첨부한 답변 메일을 보내주었다. 특히 Brandom(2002)는 웹 상에서도 구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다시 한번 브랜덤의 친절함에 감사 드린다.

이런 정의에 따르면, 추론주의 역시 구성적일 수 있다. 하지만 브랜덤에 따르면, 포더와 르포어는 서문에서 자신들이 정의한 바로서의 구성성에만 멈추지 않고, 의미론적 하부-식 속성들로부터만 (사실) 뒤따르는 (구성성으로부터의) 결과들[순방향 구성성, 역방향 구성성]을 계속해서 끌어낸다. 구성성에 대한 이런 혼동이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브랜덤은 Brandom(2006)에 와서는 기존에 자신이 구성적이라는 말을 구분 없이 썼던 경향을 바꾸어서, 위의 정의가 인정하는 바로서의 구성성(즉, 약한 의미의 구성성)을 회귀적 투사가능성(recursive projectibility)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기술한다.¹²⁾

그러면 브랜덤은 어떻게 포더와 르포어가 말하는 바로서의 구성성[강한 구성성]을 부정하면서도 언어의 생산성이 가능하다고 말하는가?

브랜덤은 이른바 ‘두-단계 구성성 전략(two-stage compositional strategy)’ (Brandom, 1994, 2000, 2002) 및 ‘복합문장들 사이의 회귀성(recursiveness)’(Brandom, 2006)을 언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브랜덤의 ‘두-단계 구성성 전략’에 대한 설명은 지면상의 이유 및 3절에서 글쓴이가 이것과 내용상 중복되는 ‘가상적인 순환적 두-단계 이론’을 다룬다는 점에 비추어, 본 논문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¹³⁾ 그래서 여기서는 ‘복합 문장들 사이의 회귀성’에 대한 브랜덤의 설명만 살펴보기로 하자. 브랜덤은 (a) 한 복합표현 내에서의 비구성성(전체론)과 (b) 복합 문장들¹⁴⁾ 사이의 회귀성을 구분하며, 복

12) 이하 논의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구성성은 포더와 르포어가 말하는 바로서의 강한 것을, 회귀성 및 회귀적 투사가능성은 브랜덤이 인정하는 것으로서의 약한 구성성을 뜻하는 것으로 한다. 단, 여기서 언급해 두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순방향 구성성과 약한 구성성[회귀적 투사가능성]은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이다. 순방향 구성성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우리가 단 순한 표현들을 이해하면 복잡한 표현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단 순한 표현을 이해하는 것이 복잡한 표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충분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회귀적 투사가능성은 말 그대로의 순방향 구성성을 부정한다.

13)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브랜덤의 저작들 및 최동호(2007)을 참고하기 바란다.

14) 여기서 복합 문장들은 복합 표현들로 대치되어도 상관없다. 즉, 브랜덤의

합문장들 사이의 회귀성을 통해서 언어의 생산성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한 복합표현(예: ‘형용사+명사와 같은 수식어구’, ‘주어, 동사 등으로 이루어진 한 문장’, ‘문장과 문장으로 이루어진 복합문장’)은 그 자체로는 구성적이지 않다. 전체의 의미는 그것을 이루는 부분들만 들여본다고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전체의 의미는 그것을 이루는 부분들 및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루지는 않지만) 그와 관련된 보다 단순한 것들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

(a) 브랜덤은 한 복합표현 내에서는 비구성성이 성립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서 ‘파란 피’라는 복합표현은 그것의 추론적 역할이 그것의 구성물들인 ‘파란’, ‘피’의 추론적 역할들로부터 계산될 수 없다. ‘파란 피’의 추론적 역할은 ‘파란’, ‘피’, ‘파란 피’와 연관된 다른 많은 실질적 추론들로부터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의미 전체론의 주장이다.

(b) 아울러 브랜덤은 복합문장들 사이에서 회귀성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복합문장들의 추론적 역할은 (그 복합 문장들 각각을 구성하는 것이 아닌, 다른)보다 덜 복잡한 문장들의 추론적 역할들로부터 완전히 계산될 수 있다.

가령 ‘이것은 파란 피이고, 저것은 파란 수박이다’란 문장을 보라. 이것은 ‘그리고(&)’라는 논리적 연결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논리적으로 복합적인 문장이다. 이때 ‘이것은 파란 피이고, 저것은 파란 수박이다’란 복합 문장의 추론적 역할은 ‘이것은 파란 피이다’와 ‘저것은 파란 수박이다’라는 구성문장[보다 단순한 문장]의 추론적 역할에 의해서 곧바로 계산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복합문장의 추론적 역할은 비구성적이다. 하지만 ‘이것은 파란 피이고, 저것은 파란 수박이다’란 복합 문장의 추론적 역할은 ‘파란’, ‘피’, ‘수박’, ‘이것’, ‘저것’과 관련된

주장은 ‘형용사+명사와 같은 하부-문장 단위의(sub-sentential) 복합 표현들 역시 비구성적이지만 회귀적이다’는 것으로 이해 가능하다. 다만 여기서 ‘복합 문장들’이라는 표현을 글쓴이가 쓴 것은 ‘브랜덤이 의미의 최소 기본 단위를 문장이라고 주장한다는 것’과 ‘그가 구축하는 양립불가능성 의미론(incompatibility semantics)의 분석 단위가 문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다른 많은 실질적 추론들(그리고 이들과 연관된 배경지식들)을 통해서 완전히 계산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복합문장들 사이에서 회귀성¹⁵⁾이 성립한다.

그러면 이런 회귀성은 생산성과 어떤 연관을 갖는가? 브랜덤의 주장은 ‘복합표현의 의미는 단순표현들+결합규칙+(부수적 배경지식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으로 이해 가능하다. 우리가 아는 배경지식들이 유한하며, 이런 유한한 배경지식과 단순표현들 및 결합규칙을 통해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사람들이 ‘당신이 만약 2030년에 관악산에 올라간다면 거기서 보이는 화려한 색깔을 지닌 버섯들을 함부로 따먹지 말아라’와 같이, 전에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문장을 이해하는 것[언어의 생산성]은 그들이 각각의 구성성분들의 의미를 실질적 추론에서의 역할을 통해서 이미 파악하고 있으며, 그것을 새로운 문장을 이해[생성]하는데 투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회귀성이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파악 및 투사과정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단순한 것들과 문법적 규칙만 안다고 해서 그것들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것의 의미를 바로 알 수 있는 것[복합어는 구성성분과 결합규칙의 함수]은 아니다. 위의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성성분들 각각의 의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수적 배경지식(‘어떤 것이 화려한 색깔을 지닌 버섯이라면 그것은 독버섯이다’)을 알아야 한다.¹⁶⁾

15) 브랜덤은 회귀성(회귀적임, recursiveness)에 대해 이상의 것 이외의 별다른 부연설명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논리학 및 수학에서 쓰이는 용법을 그대로 따른다고 보여진다. 참고적으로 위키피디아(wikipedia)백과사전에 따르면, 회귀(Recursion)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수학과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회귀(recursion)는 함수들을 정의하는 한 방법이다, 이때 정의되고 있는 함수는 그 자신의 정의 내에 적용된다. 용어는 ‘자기-유사적 방식으로 (in a self-similar way) 대상들을 되풀이하는 과정’을 기술[묘사]하는데, 역시 좀더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두 거울이 거의 서로 평행하게 놓여 있을 때 거기에 깃든 상들은 회귀의 한 형식을 띤다. (“Recursion” in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16) 한편, 모든 경우에 항상 부수적 배경지식이 필요하다고 브랜덤이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브랜덤 및 글쓴이에 따르면, 부

결국 브랜덤이 구성성을 부정하면서, 회귀적 투사가능성을 통해서 생산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기존 구성성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기존의 논의가 ‘벽돌들[단순표현들]을 건축공법[결합규칙]을 통해서 높이 쌓음으로써 거대한 마천루가 만들어진다[생산성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브랜덤은 ‘이런 건축과정에 측면 지지대[배경지식]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3. 논쟁의 진단

이제 양측의 이런 공방전에 대한 글쓴이의 진단은 어떠한가? 글쓴이는 다음 세 가지를 주장한다. 첫째, 포더와 르포어의 구성성에 의한 비판논증이 현재로서 불완전하다. 특히 배움 가능성과 연관한 역방향 구성성 논증이 그러하다(이점은 브랜덤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부분이다). 그래서 잘해봐야 순방향 구성성만 필요하다. 둘째, ‘구성성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언어의 생산성, 체계성, 배움 가능성은 추론주의 내에서도 설명가능하기 때문에 구성성 요구조건은 불필요하다’는 브랜덤의 논조에 글쓴이는 동의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모습을 ‘가상적인 순환적 두-단계 이론’을 통해서 보완한다. 셋째, 현재 불완전한 구성성 논증이 설사 작동할 수 있게끔 다듬어 진다고 하더라도, 구성성에 의존한 추론주의 비판은 공정한 것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언어의 생산성과 체계성, 배움 가능성 설명의 이점이 사라진 채) 구성성 논증의 밑바탕에는 의미의 본성에 대해서 추론주의와는 다른 직관에 단순히 호소하는 경향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1. 우선, 글쓴이는 아이들이 무수히 많은 반례들에 맞서서도 언어를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배움 가능성에 대한 포더와 르포어

수적 배경지식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확연하게 구분될 수 없다.

의 역방향 구성성 논증을 거부한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포더와 르포어는 “‘물고기’의 의미에 ‘전형적으로 호수와 개울에 산다’와 같은 전형적이고 인식적인 속성들[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들]이 포함된다”고 가정한다면 ‘애완 물고기’의 경우에도 ‘어항에 산다’와 같은 전형적이고 인식적인 속성들이 포함되게 될 것이며, 이때 ‘애완 물고기’를 포함하는 표현들은 ‘물고기’에 대한 어휘 도입에 반례들이 될 것이므로 배움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처음 전제인 ‘전형적이고 인식적인 속성들이 의미에 기여한다’는 조건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그들의 논증은 귀류법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무수한 반례들이 있더라도 배움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때 처음 전제는 거부될 필요가 없다.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많은 시행착오를 통한 장기간의 과정이다. 아이들은 물고기와 관련되어 ‘그들이 호수나 개울에 산다는 것’을 ‘애완용 물고기가 어항에서 산다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듣게 된다. 물고기가 호수나 개울에만 산다고 생각하는 어린이가 애완용 물고기를 접했을 때 그는 잠시 혼동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자신의 의미론에 모순을 일으킬 정도의 큰 사건으로 치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어린아이들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논리적[계산적]이지 않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 어른들은 물고기에 대해서 ‘어항’을 그렇게 자주, 그리고 힘주어서 강조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단어를 배우는 과정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논리적 양립불가능성(logical incompatibility)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아이들은 유관한 복잡한 표현 사례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하는 근본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른들의 보다 자주 그리고 보다 강조된 ‘속성귀속 행위들’을 통해서 한 어휘에 어떤 속성들이 대개 부여되는 지에 대해서 점차 더 많이 알게 된다.

더구나 여기서 아이들이 ‘물고기’라는 단어를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또는 그들이 접하는) 복합 문장들의 수가 매우 많다는 것 또한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이론상으로는 ‘물고기’가 들어가는 무한한 수의 복합 문장들이 구문론적으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물고기를 배우는 과정에서 그들이 듣는 것들이 꽤 많기는 하다. 그렇지만 아이

들이 실제로 접하는 것들은 결국은 유한한 것들이며, 또한 서로들 간에 많은 구문론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아이들은 수많은 문장들을 듣게 될 것이지만, 그들이 듣게 되는 문장들은 (구문론적으로) 전형적인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들이며, 그것이 전형적 패턴을 약간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형적인 것들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갖는 것들이다.

결국 아이들은 자주 그리고 전형적으로 듣는 (한정된) 문법적으로 유사한 문장들을 통해서 어휘들을 배운다고 글쓴이는 생각한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반례가 이론상 있게 되더라도 아이들은 언어를 배울 수 있다. 그러므로 포더와 르포어가 말하는 배움 가능성에 대한 역방향 구성성 논증은 설득력이 없다. 결국 잘해봐야 순방향 구성성만이 필요하게 된다.

2. 다음으로, 글쓴이는 언어의 생산성(체계성)이 ‘두-단계 구성성 전략’과 ‘복합표현들 사이의 회귀성’을 통해서 설명 가능하다는 브랜덤의 입장에 동조한다. 결국 순방향 구성성 역시 의미론에 있어서 굳이 필요한 조건이 아니다. 회귀성으로 충분하다. 이런 주장에 대한 근거로 글쓴이는 단지 간략하게만 기술된 브랜덤의 ‘두-단계 구성성 전략’이 어떻게 언어의 생산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가상적인 순환적 두-단계 이론’을 통해 보다 구체화한다. 두-단계 이론은 분해(decomposition)의 단계와 재구성(recomposition)의 단계로 나뉜다. 언어의 생산성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후자의 재구성적 측면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

한 아이가 ‘빨강’의 의미를 습득해 나가는 과정을 가상적으로 기술해 보자. 다음은 대체로는 시간 순서에 의한 것이지만, 그 과정이 서로 섞이는 것이 가능하다.

(1) 맨 처음 아이는 빨간 것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빨강’을 접한다. 이때 어른들이 어떤 것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빨간 모자야’, ‘이것은 빨간 피야’, ‘이것은 빨간 책이네’ 등등을 말하는 것을 경험한다(이것은 음성기호에 대한 경험[접촉]도 포함한다). 이때 아이는 빨간 것들을 대면하는 상황들(circumstances)로부터 빨강과 관련된 언어적 표현

들로의 실질적 추론들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써 빨강 개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해한다.

(2) 아이는 어떤 구문론적, 의미론적 특성들 속에서 단칭어(singular term)와 술어(predicate)를 어렵듯이 구분한다.

(3) (1), (2) 단계를 통해서 아이는 (복합표현들로부터 단순표현에 이르는) 일차적 분해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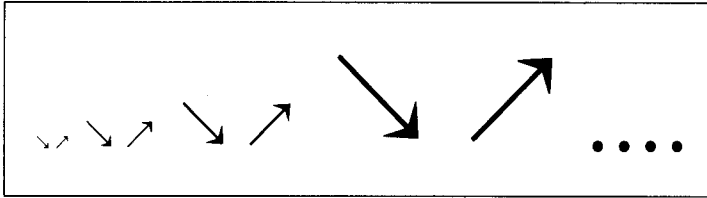
(4) 아이는 (1), (2)의 단계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그것을 복합 표현들을 구사하는데 적용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능한 화자[어른들]의 채점을 받는다. 즉 그것이 잘못 적용되었을 때는 정정을, 잘 적용되었을 때는 칭찬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일차적 재구성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5) 아이는 파랑, 노랑, 초록 등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배운다. '이것은 빨강이면 그것은 색이다'와 같은 실질적 추론의 습득이 이루어진다. 이때 이는 '빨강'은 (1)에서 배운 빨강과 약간 다르다. (1)의 빨강이 그것이 적용되는 조건과 주로 관계했다면, 이때의 빨강은 '이건 색의 일종이다, 모양과는 다른 것이다 등등'의 귀결들(consequences)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이때는 타 개념과의 대조를 통해서 빨강의 의미가 더 명확해진다. 이때 이차적 분해와 이차적 재구성을 반복한다.

(6) 세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식을 획득해 감에 따라서 '빨강'에 대해서 가지는 은유적, 비유적 의미도 함께 습득된다. 예를 들어서 '빨간 피'와 관련해서 '인간의 피는 모두 빨간데, 파충류의 피는 파랗기도 하다'와 같은 복잡한 문장들이 '빨강'의 의미를 규정하게 된다. 만약 '빨강' 대신에 '무지개 빛'을 통해서 설명하자면, 이 단계에서 이해하는 무지개빛은 (5)의 단계에서 그것이 이해될 때와 약간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무지개빛 소는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다'와 같은 부수적인 정보를 습득하게 되면서 '무지개빛'은 '환상적인, 비현실적인, 허구적인 등등'의 의미와 결합하게 된다. 또한 '무지개빛 버섯은 위험하다'라는 부수적인 정보를 습득하게 되면서 '무지개빛'은 '꼭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다, 위험할 수 있다 등등'의 의미도 결합하게 된다. 이때 삼차적 분해와 삼차적 재구성을 반복한다. 이런 과정

은 계속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정된 근거로 무한한 수의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언어의 생산성이 성립한다.

이상의 과정은 아래와 같이 도식화시킬 수 있다. 아래 화살표는 분해 단계를, 위 화살표는 재구성 단계를 표현한다.



〈보다 많은 어휘들을 익혀나감에 따라서 분해와 재구성은 점차적으로 그 폭을 넓히게 된다.〉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다음과 같은 일이 가능하다; 자신이 추론적 역할을 제대로 마스터 하지 못한 단어의 개념이 들어가는 새로운 문장은 첫 대면에서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습득하게 되는 정보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더 많은 추론적 역할들을 알게 됨에 따라] 나중에는 그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고래가 (어류가 아닌)포유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처음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된다: 어린 고래는 물고기와는 달리 젖을 먹는다.

한편, 이런 부수적인 정보들이 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글쓴이는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물론 아니다. 이런 부수적 정보의 필요성은 정도를 허용한다. ‘머리가 삼각형인 뱀 [독사]’과 ‘밑면이 삼각형인 뿔[삼각뿔]’은 차이가 있다. 전자에서 세계에 대한 부수적 정보가 그것의 의미에 더 많이 들어오지만, 후자의 경우는 덜 그렇다.

글쓴이가 전개한 ‘가상적인 순환적 두 단계 설명’이 나타내고자 하는 직관은 ‘이해(understanding)의 문제는 이다/아니다의 이분법적 틀이 아닌, 정도를 허용하는 퍼지(fuzzy)적 틀 속에서 견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단순한 표현을 이해한다면, 복잡한 표현

을 이해한다'는 순방향 구성성은 그것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전건(antecedent)의 이해와 후건(consequent)의 이해를 동급으로 취급할 필요가 없다. 물론 포더와 르포어는 그것을 같은 등급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이 실제 이해하는 활동'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글쓴이의 생각이다. '머리가 삼각형인 뱀이 주로 독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처음에 '머리가 삼각형인 뱀을 조심해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머리모양이 삼각형인 뱀을 조심하라는 표면적 의미일 뿐이다. 그러나 그가 뱀에 대한 지식이 늘어났을 때, 그는 '머리가 삼각형인 뱀을 조심해라'는 말의 참 뜻(화자가 의도한 바의 뜻)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3. 하지만 논쟁은 여기서 마무리될 수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상 구성성을 기준으로 의미론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려는 전략들[언어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성성이 요청된다 vs. 구성성 없이도 설명 가능하다]의 뒤 배경에는 의미의 본성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직관의 침예한 대립이 자리잡고 있다.

우선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용어를 도입해 보자. 이것은 새로운 용어의 도입이 아니다. 기존 용어를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약간 변형한 것이다. 한 표현의 의미가 최소한의 속성들로 구성되었을 때 그것을 '얇은(thin) 의미[개념]'이라 하고, 최소한의 속성들 이상의 부수적인 속성들을 포함할 때 그것을 '두꺼운(thick) 의미[개념]'이라고 하자. 여기서 최소한의 속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 표현이 임의의 복합 표현에서 갖는 유일한 의미만 갖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단순표현에 귀속되는 속성이다. 다시 말해서, 의미가 역방향 구성적이라는 견해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 '얇은 개념'이다. 얇은 개념의 경우에는 그것을 이루는 속성들 중에 '세계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지 않는다. 반면에 두꺼운 개념의 경우에는 그것이 들어간다(항상 무조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얇은 개념의 경우에는 분석 명제와 깊은 연관을 지니며, 두꺼운 개념의 경우에는 분석 명제뿐만이 아니라 종합 명제까지도 포괄한다.

그렇다면 왜 하필 '얇은 개념'과 '두꺼운 개념'을 도입하는가? 그

것은 글쓴이가 서술상의 편의상, 단순 개념과 복합 개념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서의 표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즉 얇은/두꺼운 개념은 단순 개념뿐 아니라 복합 개념에도 적용되는 표현이다. 그래서 얇은 개념이 특히 복합 개념에 적용되었을 때 그 복합 개념은 구성적인 것이 되며, 두꺼운 개념이 복합 개념에 적용되었을 때 그 복합개념은 비구성적인 것이 된다. 예를 들어 보자. 애완 물고기(pet fish)에 대한 얇은 개념은 단순히 ‘애완용으로 사용되는 물고기’이다. 얇은 개념은 구성성분과 결합 규칙으로만 구성된 것이다. 반면에 두꺼운 개념은 얇은 개념에 더하여, 애완 물고기(pet fish)에 대한 부수적인 정보(어항에 주로 산다)를 포함하는 것이다.

글쓴이가 파악하기에 포더와 르포어는 얇은 의미[개념]가 의미[개념]의 본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브랜덤은 두꺼운 의미[개념]가 의미[개념]의 본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양 진영은 구성성과 언어적 현상설명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 (a): 포더와 르포어, (b): 브랜덤 >

(a) 쌍방향 구성성 → 생산성, 체계성, 배움 가능성.
(얇은 의미 직관)

(b) 회귀적 투사가능성 → 생산성, 체계성, 배움 가능성.
(두꺼운 의미 직관)

(여기서 A→B의 의미는 ‘B는 A에 설명적으로 의존한다’, ‘B를 설명하는데 A가 요구된다’이다.)

즉 포더와 르포어는 이미 얇은 의미직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쌍방향 구성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브랜덤은 이미 두꺼운 의미직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회귀성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a)와 (b)의 논증이 각각 그 나름의 타당성을 지니게끔 앞으로 정교화된다고 하더라도 승부는 나지 않는다. 한쪽이 어떤 설득력 있는 논증을 통해서 다른 쪽을 너 다운(knockdown)시키는 것은 기대되기 힘들다. 왜냐하면 이미 의미의 본성에 대한 직관이 뿌리에서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대결의 핵심구도는 ‘구성적이기 때문에 혹은 구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추론주의가 틀리거나 맞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얇거나 두껍기 때문에 추론주의가 틀리거나 맞다는 것’이다.

그러면 의미가 얇다는 직관이 더 타당할까 아니면 의미가 두껍다는 직관이 더 타당할까? 이에 대해 결정적 논거를 통해서 어느 쪽 편을 들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글쓰이는 두꺼운 의미론 옹호자로서 나름의 논거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얇은 의미론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포더와 르포어는 “유능한 언어 사용자라면 바깥 세계에 대한 경험적 탐구를 진행하지 않고서도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의 의미를 알 수가 있다. 즉 언어의 의미는 세계에 대한 정보와는 다른 것이다. 언어의 의미는 진리가 아니라 진리 조건에 대한 것이다.”고 말한다. (Fodor&Lepore 2006, pp.13-14)

얇은 의미론자의 입장에서는 의미를 두껍게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식의 논의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결국에 계속 팽창하는 의미론은 백과사전에 다름 아니게 될 것이다’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점과 관련하여 두꺼운 의미론자의 입장에서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얇은 의미론자 역시 약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얇은 의미론자인 포더와 르포어의 경우 그들의 주장에 일관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다고 글쓰이는 생각한다.

포더와 르포어는 Fodor&Lepore(1991)에서 추론적 의미론이 구성성 반론을 피하는 한 방법은 ‘의미를 구성하는(constitutive) 추론’과 ‘의미를 구성하지 않는(non-constitutive) 추론’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¹⁷⁾ 하지만 분석/종합 구분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미구성

17) 여기서 ‘구성한다’는 지금까지 이 글에서 주로 사용되어온 ‘구성적(compositional)’과 다른 표현[의미]이다. 그것은 constitute의 번역어이다. 그

적 추론과 의미비구성적 추론을 구분하는 효율적 방법이란 없다. 그리고 분석/종합 구분이 거부된다는 것은 좌인이 우리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해준 바다. 그래서 추론적 의미론은 구성성 반론을 피하지 못한다고 포더와 르포어는 말한다.

여기서 그들은 추론주의에 반대하는 논거를 대면서 사실상 좌인에 의해서 제기된 분석/종합 구분의 불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얇은 의미를 옹호하는 이면에는 ‘의미는 분석적 명제와 관련된 것이며, 정보는 종합적 명제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과 ‘그 둘이 확실히 구분될 수 있다’는 전제가 암암리에 숨어있다.

포더와 르포어는 한편으로는 분석/종합 구분 불가능성에 기대어 추론주의를 공격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구분 가능성에 기대면서[의미와 정보는 구분된다], 얇은 의미 직관을 통한 구성성 논증으로 추론주의를 또한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두꺼운 의미론자가 의미가 어디까지 커질지 모른다는 비난을 받는 것 못지않게, 얇은 의미론자는 어디까지가 의미의 영역[분석적 영역]인지 밝혀야 한다는 비난을 똑같이 받을 수 있다.

다른 한편, 글쓴이처럼 의미가 두껍다고 주장하는 진영은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다.

“개념 소유에 대한 이론에서 다루어야 할 것은 두꺼운 개념인 것 같다. 애완 물고기라는 개념을 아는 사람은 단순히 그것이 애완용으로 쓰이는 물고기라는 거의 동어반복에 가까운 기술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그에 대한 전형적인 예를 접해야 한다. 그리고 개념 소유에 대한 이론과 개념 이론을 크게 구분하지 않는 입장 또는 개념 이론은 개념 소유이론(theory of concept possession)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르면 개념에 대한 직관 역시 두껍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얇은 개념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비록 논리학 및 기호학에서는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자연언어와 관련해서 ‘얇은 개념’이라는 것은 환상이다. 맥락 독립적인 분야에서는 ‘얇은 개념’이 쓰일 수 있다. 그러나 맥락

래서 의미구성적 추론은 ‘의미를 이루는[구성하는, 만드는] 추론’을 의미한다.

의존적인 분야에서는 ‘얇은 개념’으로는 부족하다. 다음을 고려해 보자.

빨간 펜의 의미는 무엇인가? ‘빨간’과 ‘펜’의 의미로만 빨간 펜의 의미가 이루어져 있을까? 빨간 펜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이다.

i) 빨간 속심을 가진 펜

ii) 겉 바탕이 빨갱게 칠해진 펜

둘 중에 어느 것이 빨간 펜의 의미인가? 이런 의미의 애매성을 얇은 개념은 설명하는데 한계를 지닌다.¹⁸⁾

또한 자연언어의 복합 표현의 의미에는 명시적이든지 암묵적이든지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무지갯빛 소’라는 개념은 ‘무지갯빛’과 ‘소’라는 개념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무지갯빛 소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부수적 정보가 필요하다. 붉은 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 개념 속에는 그 존재에 대한 암묵적인 전제들이 깔려 있다.

18) 혹자는 이런 애매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념이 얇다는 것을 논박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여전히 ‘빨간 펜’의 의미는 ‘빨간’과 ‘펜’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직관이 살아있다고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두꺼운 의미를 옹호하는 입장은 ‘속성(property)와 의미[개념]의 구분을 통해서 문제를 대응할 수도 있다. 이에 따르면, ‘빨간 펜임(being red-pen)’은 ‘빨갱(redness)’이라는 속성과 펜임(being pen)이라는 속성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념은 그렇지 않다.

다른 한편, ‘빨간 펜의 의미가 i), ii)중 어느 것인지 불확정적’이라는 위의 주장에 대해서, ‘그것은 구문론적(syntactical) 측면에서 설명가능하기 때문에 얇은 개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하는 반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i), ii)의 차이는 구문론[형식]이 기여하는 바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이런 식의 주장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형용사+명사’의 구조를 갖는 단어의 의미는 ‘형용사 성을 갖는 명사’ 혹은 ‘형용사 와 동치인 명사’ 등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형용사+명사’의 경우 그것은 그것의 구성성분(형용사, 명사)과 결합법칙[구문론]을 알기만 하면 확정된다. 그러나 글쓴이가 생각하기에 이런 설명은 한계를 갖는다. ‘복합표현의 경우에 그 구성성분들이 결합되어 이해되는 일반화된 방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복합 표현들 각각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복합표현은 ‘형용사 성을 갖는 명사’와 ‘형용사 와 동치인 명사’ 모두를 허용할 것이며, 어떤 복합표현은 둘 중에서 하나만을 허용할 것이다. 결국, i), ii)의 불확정성은 ‘형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내용’에 의한 것이다. ‘실제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전제들과 그 단어의 의미는 쉽게 분리되지 않는다.

이에 덧붙여, 문자 그대로의(literally) 의미를 가지지 않는 많은 비유적, 은유적인 표현들이 존재한다. 이런 표현들은 의미가 얇지 않고, 두껍다는 직관을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글쓴이는 의미론의 영역 속에 온갖 잡다한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글쓴이는 어떤 속성이 한 단어의 의미에 속하는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는 맥락에 상관없이 확일적으로 결정될 수 없으며[의미는 불확정적 구조를 갖는다¹⁹⁾], ‘의미가 얇다는 직관을 지닌 진영처럼, 의미가 인식적 속성들과 쉽게 분리 가능하다는 생각’에 반대한다.

포더와 르포어의 구성성 반론에 의한 논증은 어떤 점에서는, 기존의 정체되었던 ‘개념[의미]에 대한 실재론-반 실재론, 플라톤주의-프래그머티즘’ 논쟁 구도를 다시금 흔들어 보려는 시도였다고 글쓴이는 판단한다. 그것은 분명 흥미가 있는 작업이었지만 그들이 강조하는 것만큼의 효과는 거두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추론적 의미론의 앞 길을 막지 못한다. 브랜덤 호는 구성성 때문에 침몰하지 않는다. 브랜덤은 가던 길을 마저 가면 된다.

19) 의미가 불확정적 구조를 갖는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최동호(2007) [부록]을 참고하라.

참고문헌

- 최동호(2007), 「'브랜덤의 추론적 의미이론'과 구성성 문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Brandom, Robert(1994), *Making it explicit: Reasoning, Representing, and Discursive Prac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0), *Articulating reasons: An introduction to Inferentialism*,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2), "Inferentialism and Some of Its Challenges", unpublished.
- _____ (2006), "Between Saying and Doing: Towards an Analytic Pragmatism, John Lock Lecture", unpublished.
- Fodor, Jerry & Ernest Lepore(1991), "Why Meaning (probably) Isn't Conceptual Role", reprinted in *The compositionality Papers*, Clarendon Press, Oxford, 2002, pp.9-26.
- Fodor, Jerry & Ernest Lepore(1996), "The Pet Fish and the Red Herring: Why Concepts Still Can't Be Prototypes", reprinted in *The compositionality Papers*, Clarendon Press, Oxford, 2002, pp.27-42.
- Fodor, Jerry & Ernest Lepore(2001a), "Brandom's Burdens: Compositionality and Inferentialism" reprinted in *The compositionality Papers*, Clarendon Press, Oxford, 2002, pp.135-154.
- Fodor, Jerry & Ernest Lepore(2001b), "Why Compositionality Won't Go Away: Reflections on Horwich's 'Deflationary' Theory", reprinted in *The compositionality Papers*, Clarendon Press, Oxford, 2002, pp.43-62.
- Fodor, Jerry & Ernest Lepore(2002), *The compositionality Papers*, Clarendon Press, Oxford
- Fodor, Jerry & Ernest Lepore(2006), "Brandom Beleaguered",

unpublished

Fodor, Jerry(1998a), "There are no recognitional concepts - not even RED" In his *In Critical Condition*, 35-47. Cambridge, Mass.: MIT Press/Bradford Books.

_____ (1998b), "There are no recognitional concepts - not even RED, Part 2: The plot thickens" In his *In Critical Condition*, 49-62. Cambridge, Mass.: MIT Press/Bradford Books

_____ (2001), "Language, Thought and Compositionality", *Mind & Language*, Volume 16, Number 1, pp.1-15

Habermas, Jürgen(1999), *Wahrheit und Rechtfertigung*, Suhrkamp Verlag.

Szabó, Zoltan Gendler(2004), "Review of The compositionality papers" *Mind*, Volume 113, Number 450 pp.340-344